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을까?' 하는 물음을 받고 사실 난 굉장히

오래 생각했다. 막상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이었다. 기술이 발전할 것이니

전자서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까? 아니야 기특이나

컴퓨터로 글 읽는 거 짜증나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음 대신

손가락으로 들 만큼 가벼운 책.

읽어주는 책? 아니야 그것도 이제 재미없어. 음... 뭐가 있을까.

가방을 무겁게 하지 않는 책.

에잇,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하면 한번에 퍼볼 수 있는 책.

적당히 남아보이는 책.

글 | 달파란

제발 좀 가벼운 책을 내주세요

어떤 책 찾아 대형서점 탐방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서점을 가보기로 했다. 이런 저런 책이 많이 있을 대형서점으로 가보기로 하고 시내를 향해 출발! 가면서도 머리를 굴려봤지만 역시나 떠오르지는 않았다. 서점에 도착해서 책들을 만져보고 들춰보니 정말 가지각색의 책들이 있었다. 길표지가 화려한 책, 음악이 함께 들어있는 책, 큰 책, 작은 책, 그림책, 전문서적, 학습지 등등. 이 많은 책 중에 없는 건 무엇일까? 역시나 생각이 나질 않는다. 흠, 책에 대해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다니... 내가 조금 한심해지기 시작했다.

외국서적, 손가락으로 들어 올릴 만큼 가벼워

아무튼 일단 책들을 더 보기로 하고 서가를 기웃거리는데 서점직원들이 무거운 책들을 들고 여기저기로 옮기고 다닌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문득 고등학교 때가 떠올랐다. 요즘 고등학생들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진 모르겠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방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양손으로 번갈아 들어도 항상 손이 벌겍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암튼 그런 저런 추억을 떠올리다가 '아참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외국서적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 외국서적 코너로 발길을 돌렸다. 여기서도 이런 저런 책들을 만져보다가 소설책을 들어본 순간 난 그 무게에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정말 손가락으로 들어올릴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닌가.

■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책이 독서 생활화에도 좋지 않을까

해외에 여행을 다닐 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은 여행을 하면서 책을 참 많이 본다. 난 속으로 '재네는 저 책들이 무겁지도 않나? 아마 체력이 무지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도 여행을 하면서 책을 읽고 다니면 멋지겠다 싶어 몇 번 책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지만, 다들 경험해서 알겠지만 책을 여러 권 가지고 다니기에는 그 무게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외국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설책들은 무게가 정말 가벼운 게 아닌가. 음, 속았군. 이래서 그렇게들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군.

■ 국내 서적은 고급 종이로 무겁고 두껍기만 해

순간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 꼭 떠올랐다. 패키지 화려한 책? 필요 없다. 부록이 있는 책? 역시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겉모습이나 부록 같은 것이 아니다. 가벼운 책, 가벼운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그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도 확인도 할 겸해서 국내서적들의 책 무게를 체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다. 어차피 정말 책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보존할 용도가 아니라면 종이무게가 무겁다거나 두꺼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종이도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 같기도 했다. 사실 소설책 정도는 종이가 그리 좋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왕이면 재활용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확실히 국내서적은 무게가 꽤 나가는 것이었다.

■ 껍데기 화려하지 않고 무게가 가벼운 책이 좋아!

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책을 고를 때는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고른다고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조합해 보니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책은 바로 여행용 가벼운 책! 화려한 장식이나 껍데기는 필요 없다. 그리고 책표지를 보호하겠다고 곁에 만든 또 하나의 표지도 필요 없다.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으로 들 만큼의 가벼운 책, 가방을 무겁게 하지 않는 책. 생각하면 한번에 퍼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어느 정도 보면 적당히 낡아서 마치 책을 엄청 보는 사람의 책인 것 같은 책. 그래 바로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무게가 가. 벼. 운. 책!

■ 이 글을 쓴 달파란은 시나위, H2O, 뽀뽀밴드, 뽀뽀 롱스타킹의 멤버로 음반과 공연 활동을 하였으며 강산에,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등 많은 뮤지션들의 음반 제작과 공연에 세션맨으로 참여하였다. 독집 앨범으로 〈휘파람 별의 외계인〉(1998)이 있고 〈나쁜 영화〉, 〈거짓말〉의 영화 음악과 모토롤라의 광고 음악을 만들었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달콤한 인생〉(개봉예정) 등에서는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이우일과 함께 〈장난감 코끼리 몽크〉(CD1 포함, 2001)를 낸 적이 있다.